

# 이 시대 여성 선비가 제안하는 지식인의 역할모델 선 비



정옥자 지음 | 현암사 | 424쪽 | 값 25,000원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고정된 선비의 이미지는 이렇게 압축된다. 선님, 봉사원, 무위도식을 일삼는 한량, '당쟁을 통해 조선을 멀하게 한 인물.'

역사학자 정옥자 씨(61, 서울대)는 자신의 저서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를 통해 이같이 왜곡된 선비상을 바로잡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의 부정적 이미지는 식민사관에 의해 싹튼 것입니다. 본래 선비란 학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인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인적인 사람을 말하죠. 서양의 지식인은 지식만 빌려주는 참모역할에 그쳤지만 동양의 지식인은 그 시대의 주역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대표적인데 그들은 사士(선비)의 단계에서 수기修己를 하고, 대부(관료)의 단계에서 치인治人을 합니다. 우리는 치인治人하면 권력을 획득해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평소 문장가로서도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받는 정옥자 교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보다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의 책은 탁본과 유적사진, 초상화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선비라는 인물의 향기를 한번에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조광조부터 민영익까지, 저자 나름대로 선정한 25명의 선비 이야기는 책의 재미를 더해준다.

“도통론에 입각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선정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라도 일정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그 시대 아픔을 감내했던 인물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일정한 모색과 시도를 보여 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선비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망하면서 굳힘을 같이하게 된 인물들이 있거든요.”

망국기에 서 있던 운양 김윤식 선생을 그 대표적 인물로 손꼽는 정옥자 교수는 이처럼 일정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샘플로 25명의 선비를 선정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은 사람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모두 아우른다.

정옥자 교수는 과거 미대 진학을 권유받을 만큼 탁월한 색채감각을 가진 인물이면서 한편으로는 문학에 뜻을 두었던 문학소녀였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오면서 정작 택한 학문은 역사학. 그는 조선시대 지성사를 전공하면서 촉망받는 기대주로 스승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식민사관이 주류였던 당시 학풍에 회의를 느끼며 졸업 후 약 10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한다. 그 기간동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정옥자 교수. 꽤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학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고집스러운 독서법으로 공부를 계속해 온 덕이다.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반일독서(反日讀書) 반일정사(反日精思)라는 글귀를 평소 공부법으로 여깁니다. 하루의 반은 독서를 하고, 하루의 반은 정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자는 책도 많이 봐야 하고 내 학문과 연구의 논지를 넓히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학행 일치(學行一致)죠. 말로 떠벌이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문(文), 사(史), 철(哲)을 필수과목으로 하면서 의리(義理)를 분명하게 여겼고, 한편으로는 시(詩), 서(書), 화(畵)를 공부하면서 인정을 중시하는 인격을 길렀습니다.”

인정과 의리 양쪽을 잘 조화시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비. 저자는 유교적 질서가 중시되었던 시대에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선비들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여성 지도자, 지식인들의 장점을 말한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같은 분들도 훌륭한 여성 선비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여성 CEO가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노사분쟁을 찾을 수 없거든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성이 강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감성을 갖게 되죠. 지력과 감성.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전인적인 여성 인격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선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4월에 4년간 연임해 온 규장각 관장직에서 물러나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그는 그동안 규장각 관장을 하면서 세 가지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힌다.

“첫째는 제게 숨겨진 행정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행정업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릴 때 만장했던 경험도 좋은 예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문화상품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우리 선비상도 그런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문화를 상품화한다기 보다는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에 인문학 공부를 하는 박사들에게 새 일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인문학 공부를 하는 후배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게 되어 뿌듯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사학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았어요. 문학, 사학, 철학 등을 아우르면서 한문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죠.”

관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웠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뿌듯해 하던 그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를 역할모델로 여겨야



하는 현 시대의 몇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직자들과 학자들이죠. 사실 새 정권을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쟁해서 권력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공동체 사회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선비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공생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자와 학자들이 어떤 권력을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족은 도덕적, 인격적인 면모가 부족하고 속물 근성이 강해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볼 수 없죠. 진정한 귀족과 선비는 책임감이 있는 정신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 말은 무조건 절제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제어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자신보다 없는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선비 모델은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들에게 늘 반일독서(反日讀書), 반일정사(反日精史)를 권한다는 그는 꿈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스승이 되는 것이다. 인문학이 화려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문영역을 지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 선비. 지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참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 **출판**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